



모바일로도 동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행

동행 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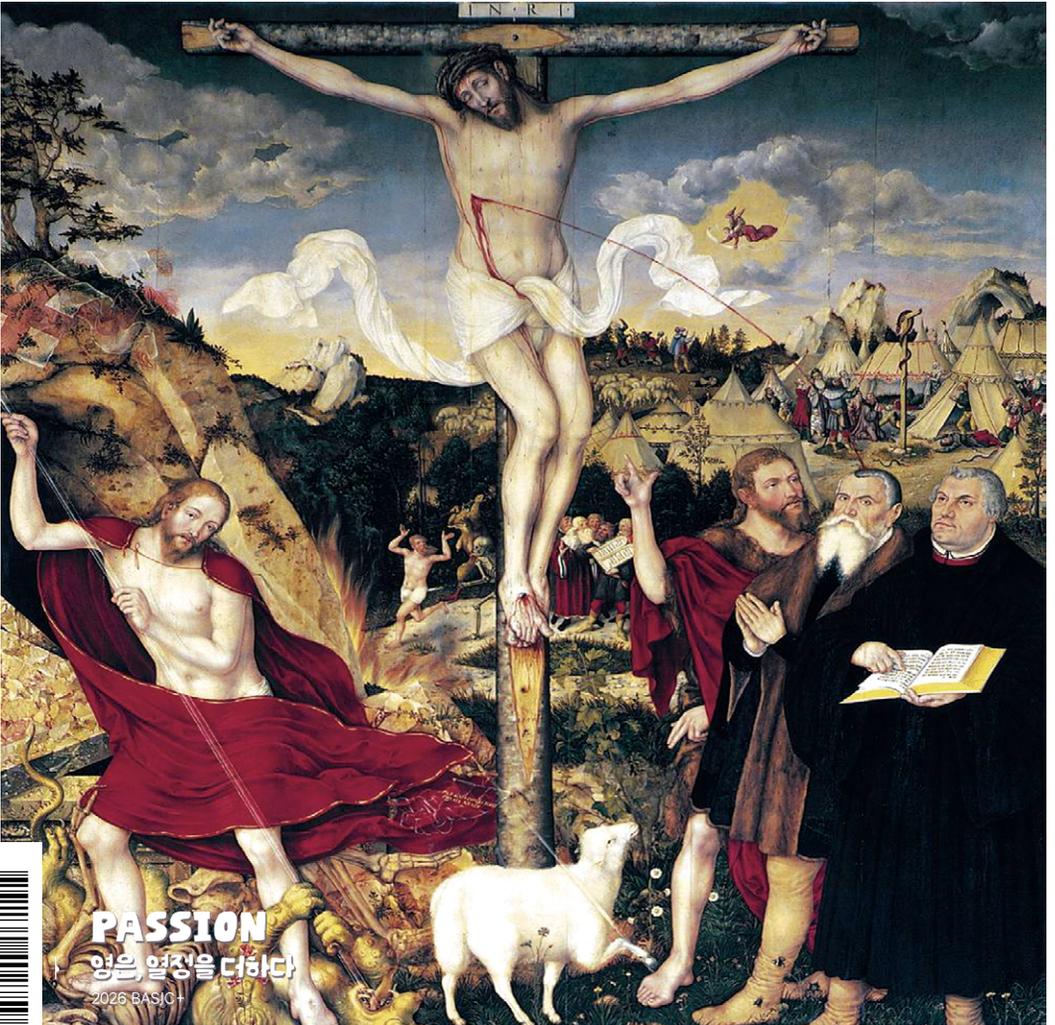
선교하는 교회 - 김성준 목사

신앙의 유산

6대가 지켜온 믿음 - 이지숙

청년마당

몽골 단기선교 - 임찬송



www.youngeun.or.kr
916004241840427

근심 먹는 우체통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지나갔고

12%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 때문에 발생하고

10%는 과장된 걱정이다.

단 8%만이 실제로 대비가 필요한 걱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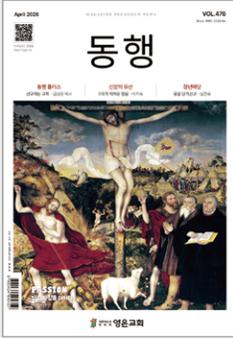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미리, 과도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무거운 근심은 버리고 가벼운 마음만 가지고 가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글·사진 | 서현이 기자



루카스 크라나흐의 <올법과 은총>

월간 동행 영은 영상홍보부

창간일 1986년 4월 27일
 발행일 2026년 4월 5일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02-2676-7171~2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최윤호 장로

편집차장 김명희 권사 김창원 안수집사
 편집 김경원B 김명희 김창원 김한욱
 윤정림 이숙경A
 기자 김명희 김재원 나영 서현이
 송경란 윤정림 이숙경A 이종은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인스피릿디자인

월간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과 웹진 동행

월간 『동행』과 교회의 또 다른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와 YES앱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2 **그림이 있는 풍경** | 근심먹는 우체통 서현이 기자
- 04 **생명의 말씀** | 멈추지 않는 그뜨거움, 지속 가능한 열정 이승구 목사
- 08 **시와 그림** | 부활절에 김현승
- 09 **그리스도인의 향기** | 한 그릇에 담긴 은혜의 여정 정복자 명예권사
- 11 **동행플러스** |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선교하는 교회- 김성준 목사
- 15 **구역식탁** | 구역장과 교사로서 교회 봉사 김현주 집사
- 17 **신앙의 유산** | 故 이승진 은퇴장로와 송미자 은퇴권사 이지숙 권사
- 20 **소식&나눔** | 영은 집수리 봉사단 출범 김창원 기자
 - | 권사회 봄 수련회 최경애 권사
 - | 친정 같은 영은교회에 드리는 편지 안용현 목사
 - | 중·고등부 성경고사대회 서아영 학생
 - | 더누림 공동체 봄 수련회 이운선 성도
 - | 영아부 겨울성경학교 육근찬 성도
 - |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이예주, 문시우 학생
 - | 소년부 겨울성경학교 박차울 학생
 - | 봄 꿈자람부데이 이해진 집사
 - | 늘푸른학교 개강 백정란 권사
 - | 故 김창성 은퇴장로 교회장
- 32 **청년마당** | 몽골 단기선교 임찬송 청년
- 35 **선교현장 속으로** | 사라왁 쿠칭에서 기도편지 구용희 선교사
- 37 **슬기로운 교회생활** | 교육 3부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정성훈 목사
- 38 **생활노트** | 한약사에게 묻다: 한약&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궁금증 권지에 집사
- 40 **뒷표지** | 창립기념주일 2026 영은 올백 데이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편집 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동행 이메일 yemagazine@naver.com]

멈추지 않는 그 뜨거움, 지속 가능한 열정 [요15:4]



글_ 이승구 담임목사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4)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열정’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애쓰지 말고, 붙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고군분투하지 않고 그저 나무에 잘 붙어 생명을 공급받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듯 우리의 열정도 내 힘으로 짜내지 않고 그저 주님 안에 거할 때 지속됩니다. 여기서 ‘거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상태가 계속 유

지되다’,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지가 나무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유기적으로 완전히 결합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거함’은 **‘관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나를 위해 무엇을 더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안에 머물라”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사귄의 관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공유하며 그분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또한 ‘거함’은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설교영상보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마음과 능력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거함’은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상태를 말합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것, 한 번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칠 때도, 식을 때도, 흔들릴 때도 계속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함’은 주님과와의 관계에 머물며,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된 삶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지속 가능한 열정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열정은 내가 스스로 불을 지피는 ‘자가발전’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가까이 붙어 있느냐가 열정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없는 열심은 거함을 방해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있기’보다 ‘무언가 하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상태입니다. 주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과 거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영적 막힘’이 거함을 방해합니다. 가지가 붙어 있어도 통로가 막히면 수액은 흐르지 않는 법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누군가를 원망하며 계속 붙잡고 있는 상처, 하나님께 닫힌 마음이 쌓여가면 생명이 흘러들어오지 못합니다.

‘간헐적 신앙’도 거함을 방해합니다.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힘들 때만 붙고, 괜찮아지

면 다시 떨어집니다. 뿌리를 내리고 수액을 받아들이는 ‘가지’가 아니라, 목마를 때만 잠시 들르는 ‘나그네’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러한 일회적 신앙으로는 결코 열정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15:2)

농부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가지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의 열정을 ‘선택과 집중’ 하도록 이끄십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자신만만한 능력을 멈추게 하셔서 엉뚱한 곳으로 분산되던 에너지를 ‘주님의 영광’이라는 원줄기에 집중시킵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이자 편집의

과정입니다. 가지가 잘려 나가는 고난을 통과하며 불순물이 빠진 열정은 이전보다 더 정결하고 단단합니다. 하나님의 가위질 끝에 맺힐 그 찬란한 열매를 기대하며 거함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열정의 소유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십시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흐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 우리의 존재 근거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기준을 재정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기도의 내용이 변화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면, 그 감격은 우리를 다시 더 깊은 주님과



의 관계로 이끕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동하는 핵심 펌프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오게 하며, 열정의 엔진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얽은 생각은 주님의 지혜로 덮이고, 억지로 짜내는 열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굳센 결단의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열고,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는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어떻게 열정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쓰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타오릅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깊이 주님 앞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늘의 생명이 다시 흐르고, 멈추지 않는 열정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한 그릇에 담긴 은혜의 여정



정복자 명예권사

결혼 전까지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낯설고 생소한 공간이었지만, 결혼 후 ‘조금 더 다녀보면 알게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예배가 거듭될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울림이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특히 장일균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을 몰랐던 제 삶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었고, 세례 또한 큰 결단이라기보다 그 빛을 따라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즈음, 시댁에서 좋게 봐주신 음식 솜씨가 당시 봉사부장이셨던 이준호 권사님께 전해지며 자연스럽게 봉사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컸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를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여섯 살 난 아들이 뇌수막염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큰 시련이 찾아왔고,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아이가 회복된다면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은

혜로 아이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제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고, 식당 봉사는 더 이상 일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라는 말씀처럼 저는 맡겨진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겼고,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며 때로는 장작불로 가마솥 밥을 지으며 낯선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따뜻하게 식사하던 아이들과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를 다시 봉사 자리에 머물게 했고, 섬김은 제 삶의 기쁨과 사명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 봉사부는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열 분 남짓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한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섬기던 시간이었고, 서로 의지하며 웃고 울던 기억이 남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늘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김춘화 권사님과 함께했던 시간은 지금도 제 마음에 소

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그 시간은 제 신앙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세워 주었습니다.



제3회 영은성서대학.
기초성서연구과 및 주제별 성서연구과
졸업 여행(1984.6) <한려수도. 2박3일>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을 봉사부에서 섬기다가, 2013년 들어 건강상의 이유로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기에 가능

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제 평생의 요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삶의 제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롬 12:1)라는 말씀처럼, 제 삶의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남은 손이지만, 그 손으로 차려낸 밥상은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방의 앞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 온기 속에서 자란 믿음은 여전히 제 삶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제 삶의 마지막까지 따뜻한 밥상 같은 믿음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 정성과 헌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 정리 | 김재원 기자



봉사부 설악산 야외예배



가족모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 선교하는 교회 -



김성준 목사
(홍콩동신교회 원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 11:9)

그러면 바다도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시 74:13-14) 바다에 용과 리워야단이 산다고 말씀합니다. 용은 사탄을 뜻하고, 리워야단은 바다에 살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사탄과 온갖 괴물들이 살고 있는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1)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인데 거기에 바다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온갖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교회 5주년 기념 예배 (설교: 김성준 목사)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물의 깊이가 자그마치 150m였다고 합니다. 단단한 석회암을 깨뜨려 가면서 150m에서 200m를 파야만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니까? 오늘처럼 미리 구멍을 뚫고 시추를 해 볼 수도 없는 일이고, 수백 번을 파야 겨우 한 두 개의 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룬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신 11:14)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사 55:1) 이처럼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갖 악한 무리를 물리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마 12:43) 여기서 물 없는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찾

아다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귀신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온전히 덮는 날,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 바다를 덮는 은혜의 물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다를 덮는 은혜의 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에스겔서는 말씀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겔 47:12)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이 점점 깊어져 처음에는 발목에 차더니, 그다음에는 무릎까지, 이어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강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겔 47:8)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를 덮어,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의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아무리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악에 물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지금도 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4)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생수를 마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덮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사명을 망

각한다면 그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서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클리더로(Clitheroe)라는 도시에 있는 ‘시온산감리교회’ 건물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브리스톨(Bristol)의 ‘세인트 폴교회’ 건물은 곡예사를 양성하는 서커스학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Amsterdam)의 ‘파라다이스교회’는 클럽으로 변해 미국의 팝가수 마돈나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로마의 중세 교회들은 식당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활발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사명을 외면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홍콩동신교회

저는 홍콩동신교회에서 시무하는 32년 동

안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교회인 홍콩동신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마카오한인교회, 중국 창핑한인교회, 중국 천진 복된교회, 필리핀 마닐라 길벗교회, 태국 방콕 스쿰빗한인교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쁨의교회,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쎬금바르교회, 말레이시아 생카교회를 세웠습니다. 평균 4년에 한 번씩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 재정을 쏟아부어 선교하면 그만큼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에서, 그것도 서울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침사추이(Tsim Sha Tsui)’에서 교회 건물을 세 배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모교회인 영은교회 창립 6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쎬금바르교회 건축 모습



쎬금바르교회 완공된 모습

구역장과 교사로서 교회 봉사



김현주 집사
(401구역)

할머니의 기도로 대대손손 뿌리내린 신앙생활

김현주 집사는 1976년 인천 태생인데 30살에 결혼하면서 서울로 이사했다. 김 집사의 친정어머니는 신앙인이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 김 집사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어머니가 김 집사를 포함한 세 자녀를 교회로 먼저 보내셨다. 이후 어머니도 교회에 나가게 됐다. 어머니는 인천교회에서 권사가 되었고 이후 아버지도 교회에 다니다 장로로 은퇴했다.

김 집사는 대학 시절에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교회로 긴급히 전달된 외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할머니는 교회 서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어느 때처럼 성경을 읽다가 책 읽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가족과 자녀 모두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김 집사는 이 모든 게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었다.

구역장과 소년부 교사로서 교회 봉사

양평동으로 이사 온 후에 큰아이가 먼저 영은교회에 다녔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사님은 아이들 육아 문제로 인천교회와 영은교회를 번갈아 다녔다. 그사이 친해진 큰아이의 유아부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영은교회에 정착했다. 양평동으로 이사 오기 전부터 김 집사의 직장 선배 추천으로 ‘영은교회’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다. 선배는 “내가 다니는 영은교회 정말 좋아. 애들 다니기에는 특히 좋아.” 라고 말하곤 했다. 이사 와서 보니 집 주변에 영은교회가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웠다.

김 집사는 다소 이른 나이에 권찰이 되었고 이듬해에 504구역 구역장이 되었다. 그때 나이가 39살이었다. 2년 후 다른 구역으로 이사진 다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504구역의 구역장으로 남아 있다가 시아버지 병간호로 1년을 쉬었다. 교구 목사님이던 이승철 목사님이 타 교회로 가면서 김 집사에게 401구역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4년간 구역장으로서 구역을 돌보고 있다.

집사님은 10년째 소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교회의 증축 공사가 진행될 때는 새마을금고 건물 2층에 소년부 임시 예배실을 마련해 그곳에서 학생들과 예배를 드렸다.



5층 소년부실 입구에 있는 조이카페 안내 표지판

그 시기에 토요일마다 열리는 조이카페(Joy Cafe)가 생겼다. 조이카페는 지역 아동들이 모여서 소년부 교사들이 만든 간식을 먹으며 놀이와 게임을 즐기는 곳이다. 공사가 끝난 후에도 조이카페는 영은교회 소년부실에서 계속 진행됐다. 매주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의 아동이 카페를 찾는다. 조이카페 초기에는 지역의 많은 아동이 카페를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곤 했다. 시간이 지나며 교사들이 바빠 카

페 관리가 어려워지고, 아이들의 일상도 바빠지며 조이카페를 이용하는 아동 수가 줄었다.

구역장으로서 미안함과 기대감

소년부 교사로서의 봉사가 구역 일에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소년부에서 아이와 학부모를 섬겼던 교사 경력이 구역에 아이 있는 가정을 담당할 때 아이와 부모 양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 2024년 하반기에 등록된 새가족을 4교구에서 맡아서 관리한 적이 있다. 그때 401구역에도 세 가정이 들어왔다. 한 가정은 기존에 속해 있던 구역으로 되돌아갔고, 각각 초등학교 자녀를 둔 두 가정은 401구역에 잘 정착해서 계속 연락하며 지낸다.

김현주 집사의 두 자녀(대학생 박민선, 고3 박민아)도 영은교회에 다니고 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던 남편 박귀영 집사도 소년부 교사다. 김 집사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라 구역 일에 적극적이지 못해 마음 한편에 구역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구역 모임을 따로 하지 않지만, 구역 단체 대화방에서 40대와 50대 다섯 명이 활발하게 소통한다. 바쁜 일상에서도 구역원 가정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줍은 구역장까지도 덩달아 움직이게 만든다. 그중에 차기 구역장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6대가 지켜온 믿음

-故 이승진 은퇴장로와 송미자 은퇴권사-



이지숙 권사
(은목교회)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버지 이승진 장로는 1921년 10월 10일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이학로 장로와 허학선 권사의 3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유년 시절 몸이 약했던 아버지는 어른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어머니 송미자 권사는 1928년 5월 12일 인천에서 외동딸로 출생해 조부모에게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



이승진 장로 칠순 잔치

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1953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석방된 후 영등포구 문래동에 정착하였고 대한모방에서 근무했다. 아버지는 그 직장에서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다. 대한모방은 훗날 영은교회의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결혼 조건으로 십일조 음수를 제안했다. “십일조를 꼭 하겠는가?”라고 묻자, 어머니는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결혼 후 어머니는 십일조 약속을 평생 지키며 사셨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십일조 생활을 크게 기뻐하였고, 어머니를 한결같이 사랑하였다.

신앙의 유산

아버지 집안은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독교 가정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릴 적 집안 어른들이 한 말을 회고하며 내게도 ‘신앙의 유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버지 집안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는 먹을 양식조차 귀한 시기였다.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 굶을 때 제물로 쓸 돼지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집안 형편이 조금 좋았던 집들은 새끼 돼지를 구해서 키워 가면서 굶을 했던 시대였다. 아버지 집안 어른들도 새끼 돼지를 구해서 제물로 쓰려고 키웠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난 선교사와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큰 우환이 해결되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때부터 아버지 집은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과 예배 처소를 마련해 같이 예배드렸다. 그 가정예배가 부흥해 온천교회가 되었다.

아버지의 부친(이학로)은 일제강점기 때 교회 종탑의 종을 숨기고, 일본 패망하라고 기도도 했다는 사실로 고발당해 여러 번 옥고를 치르다 총살당했다. 아버지의 형님은 인민군에 징용되어 전사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일제와 공산당에게 박해받은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며 평생을 가슴 아파했다.

영은교회 창립교인이 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한모방에 근무하면서 당산동에 있던 새마을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가 몇몇 가정과 함께 새마을교회에서 분리해 교회

를 개척했다. 1960년 4월 24일에 두 분은 다른 교인들과 함께 영은교회(당시 영중교회)를 개척해 창립교인이 되었다.

아버지는 부친의 가르침에 순종해 십일조와 헌금 약속을 평생 실천했다. 겸손하고 정직한 신앙인이었다. 일생 다른 사생활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오직 교회가 전부였다. 교인들을 가족같이 여기며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 늘 기도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청렴한 사랑'을 품고 사셨다. 목회자의 사역에 본인이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면서 순종의 본을 철칙으로 지키고자 했다.



2020년, 교회 친교실(7층)에서 드린 이승진 장로 100세 상수예배

평생을 함께한 영은교회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찬송은 찬송가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다. 아버지의 주제гада. 아버지는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 늘 이 찬송을 불렀다. 2022년 11월 16일 아버지는 102살의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아버지의 별세 이후에 내게 305장 찬송은 흐르는 눈물로 부르기 어려운 찬송이 되었다.

아버지가 좋아한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마지막까지 묵상하셨다.

올해 98살이 되신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매일 “이번 주일은 영은교회에 가야 해”라고 말한다. 평생을 함께한 ‘영은교회’를 어머니는 늘 가슴에 품고 잊지 못한다. 이번 4월 19일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 주일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토록 그리던 영은교회에 가 예배드리려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2남 2녀(운석, 혜숙, 운호, 지숙)를 낳으셨다. 네 자녀 모두 영은교회에서 성장하였다. 지금은 생활권에 따라 지방과 해외에서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9명의 손주와 9명의 증손이 있다. 아버지로부터 4대째, 할아버지로부터는 6대째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66년 동안 건강하게 성장해 온 영은교회는 믿음의 자부심이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소망이 있는 교회다. 새롭게 채워지며 빛을 내는 사랑이 있는 교회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숙함이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타나 살이 붙고 피가 돌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세상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기도한다.



영은교회 제 1대 담임 박조준 목사와 송미자 권사
(2025. 3. 25. 영은교회)

YEH! 재능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고칩니다
 영은 집수리 봉사단 발대식 '26. 3. 8 오후예배



“열정을 더해 이웃의 집을 세우다”



- 영은 집수리 봉사단 출범 -

본당에서 울려 퍼진 헌신의 다짐

지난 3월 8일 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영은 집수리 봉사단’ 발대식이 거행됐다. 복지부 부장 이갑현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는 전체 단원 42명 중 34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발대식은 단원 소개, 단원을 대표한 임명장 수여, 단원들의 선서 제창,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소통과 공감으로 맺은 열정의 결실

봉사단의 출범은 수년 전 영세 가정의 집수리를 경험했던 한 집사와 복지부 장로와의 깊은 소통에서 시작됐다. 2025년 하반기부터 기도하며 노회 내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교회를 탐방하며 준비하다가 2026년 교회표어 "열정을 더하다"에 맞춰 정책 당회에서 사업이 결의되어 진행하게 됐다.

복지부 이갑현 장로는 “영은 집수리 봉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동반하는 섬김과 나눔의 활동이다. 또

한 단순히 낡은 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들과 봉사자들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힘과 용기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삶의 회복을 주는 봉사 활동”이라고 집수리 봉사의 의미를 밝혔다.

양평1동 인근 5~6가정을 목표로 1호 사업 완료

봉사단은 양평1동 주민자치센터 추천 가정, 취약 계층 가정(독거, 차상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연 5~6가정의 집수리를 목표로한다. 향후 양평 2동과 당산동 등 영은교회의 이웃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발대식을 마친 후 3월 28일에 진행된 제1호 집수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현재 집수리 봉사단은 팀장 오신탐 안수집사 외에 집수리 분야 전문가와 봉사자 40여 명으로 구성된다. “재능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고칩니다”라는 구호 아래,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눌 성도들을 상시 기다리고 있다.

김창원 기자



최경애 권사

“권사회, 열정을 더하다”

- 권사회 봄 수련회 -

3월 4일 수요일, 영은교회 비전홀에서 권사회 봄 수련회가 진행됐다. 오전 10시 10분부터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 가운데 성전을 가득 채운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박상신 권사와 장유경 선생의 깊은 울림 있는 색소폰 이중주(해같이 빛나리 외)는 참석한 모든 이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승구 담임목사님이 시편 56편 12절과 57편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권사의 영적 온도, 책임감”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두드러진 모습 두 가지, 즉 ‘하나님과 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에 대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다. 이승구 목사님은 “권사는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초심을 지키며,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예배 후 7층 식당에서 식사했다. 권사들은 창가에

내리찍는 봄 햇살 같은 미소로 맛있는 식사를 하며 정겹게 대화를 나눴다. 주 안에서 하나 됨을 느끼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소중한 수련회였다. 권사들과의 나눔 속에 사랑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식사 후에는 정영진 형제(더누림)가 준비한 흥겨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퀴즈도 풀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면서 배가 아플 정도로 크게 많이 웃었다.

마지막 순서는 박대원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은 후 뜨겁고 열정 가득한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다.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확정할 때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권사들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그렇게 살겠다고 은혜로 결단했다.

친정 같은 영은교회에 드리는 편지



안웅현 목사
(전주 본교회)

살림! 영은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영은교회에서 사랑교구와 교육부를 섬겼던 안웅현 목사입니다. 20년 전, 뜨거웠던 사역의 기억을 간직한 채 영은교회를 떠난 지 어느덧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주님께서서는 저를 남미 수리남 선교사(2007-2012)로, 또 중국(2013-2015) 현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비자 거부라는 예기치 못한 장벽 앞에 눈물짓기

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이었습니다.

이후 귀국하여 전주에서 캠퍼스 사역과 가정교회 사역을 경험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개척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일, '세상과 교회의 본이 되자'라는 표어 아래 '전주 본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올해 3월 창립 1주년을 맞아 '선교지 탐방과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2월 21일(토)부터 22일(주)까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영은교회 방문(2026. 2. 22. 주일 3부 예배 후)

영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환하게 맞아주시는 이승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을 보니, 마치 친정집에 온 듯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언제나 손 내밀면 기꺼이 잡아주실 것 같은 부모님의 품, 세계 영은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04년의 저로 돌아가 1박 2일을 산 것 같았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연로해지신 성도님들을 뵈는 때는 가슴 한구석이 아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마음에 품고 다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영은교회라는 든든한 뿌리가 있기에 저희 전주 본교회도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성장을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2026년 3월 2일, 전주 본교회 안웅현 목사님과 성도 일동 올림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강의를 듣는 전주대 40명, 예수대 120명 학생과 일대일로 매칭하여 기도해 주실 기도후원자가 필요합니다.
2. 본교회에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해 주실 협력자들, 동역자들, 섬기미들 50명이 2026년도에 총원되기를 기도합니다.
3. 재정은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렵니다.
주님 아시지요?
4. 저와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본교회에 받을 디딘 모든 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자라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예배 때 2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영등포노회 성경고사대회에서 1등 쾌거를 이룬 영은교회



서아영 (중등부3학년)

중·고등부 영등포노회 성경고사대회가 3월 21일 (토)에 도림교회에서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교회 중등부는 단체전에서 1등과 3등을, 개인전에서는 참가자 7명 전원이 만점을 받아 공동 1등을 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등부도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모두 1등을 거머쥐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성경고사대회 참가를 신청했지만, 성경고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다. 예상 문제만 공부하지 않고 예상 문제의 성경 구절(예로,

롬 12:2) 전체를 반복하여 읽었다. 또한 선생님이 출제한 4회분의 모의고사를 풀며 철저히 준비하여 변형된 시험 문제에 빈틈없이 대비했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채점 결과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모두 1등을 하게 되어 정말 놀랍고 기뻐다. 열심히 노력한 시간이 떠올라 하나님께 감사했다. 무엇보다도 값진 것은 참가한 중·고등부 20명 모두가 성경고사대회를 끝까지 완주했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을 느꼈고, 앞으로도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생각했다.



중등부

- ① 단체전 1등: 강유준, 서아영, 이루다, 이지안
- ② 단체전 3등: 김지은, 김진유, 박정우, 정하랑
- ③ 개인전 1등: 강유준, 김지은, 김진유, 서아영, 이루다, 이지안, 정하랑
- ④ 지도자상: 임세제, 정신택



고등부

- ① 단체전 1등: 김선규, 박민서, 서혜진, 이가윤
- ② 개인전 1등: 김선규
- ③ 지도자상: 신영진

더누림 공동체 봄 수련회 “열정을 품고 함께 서다”



이윤선 (더누림)

더누림 공동체 봄 수련회가 지난 3월 20일~21일에 진행됐습니다. 올해부터 더누림을 담당하시는 김민식 목사님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공동체의 좋은 본입니다. 이 공동체는 짧은 시간 안에 세워졌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며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같은 열정으로 함께 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요 15:4)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 예수

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는 자리(공동체)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고, 사랑은 수고와 섬김으로 나타나며, 소망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인내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건 개인의 결단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는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그렇게 본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서 있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더누림 공동체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가 따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품고 함께 서는 공동체,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민식 목사님께서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도록 더욱 함께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이후에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이어갔습니다. 이번 봄 수련회가 각 지체에게 복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과정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영아부 겨울성경학교 말씀파워! 예수님!



육근찬 성도

2월 22일 주일, 영은교회 영아부에서는 아이들 27명과 함께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말씀파워 예수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사도행전 9장 20~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이 영아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찬양 울동’을 맡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성경학교 예배를 열었는데, 특히 ‘반짝 아이’ 찬양이 시작되자 평소보다 많은 아이가 무대 앞으로 나와 몸을 흔들고 손을 들며 반응했습니다. 아직은 말로 신앙을 표현하기 어려운 나이지만 찬양의 기쁨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모습은 그 어떤 고백보다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미 아이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성경학교에는 아빠들이 직접 참여하

는 주제찬양 울동 코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코너를 맡아 울동 연습을 담당하며 처음에는 울동을 어색해하던 아빠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곧 엔딩포즈 아이디어를 먼저 내실만큼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하신 점과 아이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울동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믿음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많은 아이가 유아부로 진급하며 영아부 인원이 적어져 아쉬웠지만, 올해 그 수가 늘어나 27명의 천사와 함께하여 더욱 감사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섬기려는 교사들의 모습은 이번 성경학교를 더욱 든든하게 했습니다. 성경학교 전날에도 교사들이 모여 기도하고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교실을 꾸미며 흘린 땀방울 또한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바르게 믿어요”

또 가고 싶은 성경학교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바르게 믿어요”란 주제로 초등부실에서 있었다. 초등부



이예주 (초등부 3학년)

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언니, 오빠나 친구 그리고 선생님과 별로 친하지 않아서 첫 시간은 서먹서먹했다. 그런데 조 활동과 코너 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친해졌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활동을 하며 나의 신앙이 더 자란 것 같다.

특히 코너 활동 중에서 ‘죄’라고 적혀있는 종이컵을 핀, 젓가락, 숟가락, 집게, 키팅 중에서 하나를 이용해 쓰러뜨리는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공과 공부를 하며 성경책에서 말씀 구절을 많이 찾아서 이제 말씀 찾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또 예수님

이 이루신 네 가지의 기적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가고 싶은 성경학교였다.

모든 게 재미있었던 성경학교

처음 성경학교에 가서 너무 좋았고, 그중 아픈 친구들을 축복해 준 시간이 가



문시우 (초등부 4학년)

장 좋았다. 그때 아픈 친구들이 정말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또 선생님들과 찬양하고, 율동할 때도 재미있었다. 나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더 재미있었다. 전도사님과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재미있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릴 말이 많았다.

내년에도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싶다. “하나님! 제가 성경학교에 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년에도 제가 성경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박차율 (소년부 6학년)

소년부 겨울성경학교 “예수님의 편지가 되다”

2026년 2월 27일(금)부터 3월 1일(주)까지 영은교회 소년부실에서 “예수님의 편지”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성경학교 시작 전부터 제 마음이 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과 2박 3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날을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기대했던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통해 ‘일곱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이 참 좋았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곱 교회 중 서머나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는 코너 학습 덕분에 성경학교가 더 신났습니다. 매일 저녁 집회 시간에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시간에는 ‘성인 리코더

반’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노래를 연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하시는 멋진 연주를 들으며 제 마음도 따뜻해진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친구와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잘 풀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수련회가 끝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교회’의 폴리캡처럼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닫혀 있던 마음이 기도를 통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순서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공부와 제가 좋아하는 것에만 빠져 있었던 저를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다음 여름성경학교도 이렇게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봄 꿈자람부데이에 가나아트파크를 찾은 어린이들과 교사들



이혜진 집사
(꿈자람부)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봄 꿈자람부데이”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4년 전 드라마에 나온 이 대사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고, 제가 섬기고 있는 꿈자람부 아이들에게도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번 3월 21일(토)에 진행된 ‘봄 꿈자람부데이’는 바로 그 대사가 실현된 날이었습니 다. 어린이 28명과 교사 10명이 가나아트파크에서 즐겁게 교제했습니다.

어린이 미술관과 놀이터가 있는 조각공원에서, 샌드 아트와 블록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도자기 연필꽃이를 만들며 하루를 기쁨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매일 ‘십자가를 찾아라(꿈자람부 사순절 절기 교육 프로젝트)’를 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던 아이들은 도자기에 십자가와 예수님을 그리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리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래끼리 한 조가 되어 미션을 함께 수행하며 미술관 작품을 더 깊이 있고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아이들은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함께 뛰어놀며 미끄럼틀을 타기도 하고, 그물 놀이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볼풀장에 누워 공을 헤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봄 꿈자람부데이는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었습니 다. 우리의 짙은 미소 속에 3월 새 학기에 느끼는 긴장과 불안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즐겁게 노는 중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과 영은교회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 친구들을 배려하는 모습에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께서도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즐거워하며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의 온기로 가득 찼던 영은교회 늘푸른학교 개강



백정란 권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양손을 모아 만든 작은 하트부터 머리 위로 높게 그린 커다란 하트까지... 늘푸른학교만의 특별한 인사법이 비전홀에 가득 울려 퍼졌던 3월 5일 목요일 10시, 2026년 첫 학기가 활기차게 문을 열었다.

늘푸른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출석률을 기록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새 학기를 시작했다. 180여 명의 학생으로 가득 찬 3층 비전홀은 다시 만난 학우들과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로 봄꽃보다 환하게 피어났다.

1부. 개강 예배는 이승구 담임목사님께서 창세기 9장 23절을 본문으로 “**실수를 통해 배우는 한 가지**”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셨다. 예배 후에는 6개 반(성경읽기반, 찬양반, 노래반, 건강체조반, 두뇌놀이반, 아로마미술반)과 교사 17명을 소개했다.

2부. 건강체조 시간에는 서미영 선생님의 지도로 겨우내 움크렸던 몸을 시원하게 기지개 켜듯



늘푸른학교 개강 예배

풀어내며 활력을 되찾았다.

3부. 치매 예방 교육(영등포구 보건소 배진옥 강사)은 학생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7층 식당에서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개강 첫날의 모든 일정을 교제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으로 풍성하게 마무리했다.

[영은 늘푸른학교]

- ① 수업기간 : 2026. 3. 5.~6. 25.
- ②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10:00
- ③ 대상 : 만 70세 이상



故 김창성은퇴장으로 교회장(教會葬)

네 딸을 믿음 안에서 정성껏 양육하여 그들도 모두 중직으로 봉사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장로님의 참되고 진실한 삶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내셨습니다. 2026년 3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셨습니다.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장로님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품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도록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삶과 따뜻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영은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장로님,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3월 28일 문희교 은퇴장로

지난 3월 28일 토요일 고(故) 김창성 은퇴장로의 교회장 장례예식이 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고 김창성 은퇴장로는 1935년 전북 김제에서 출생했으며, 1975년 영은교회에 등록했고, 1996년에 장로 장립을 받아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다가 2005년 장로직에서 은퇴했다. 고 김창성 은퇴장로는 임점순 명예권사와 결혼하여 현이, 은희, 진희, 성희 4녀를 두었고, 네 딸에게 성경 필사 4권을 남겼다. 다음은 문희교 은퇴장로의 조사다.

조사(弔辭)

사랑하는 김창성 장로님!

장로님은 1975년 영은교회에 등록하신 이후, 30여 년간 교회 관리와 중직으로 헌신하시다가 1996년 5월 12일 장로로 임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31일 은퇴하실 때까지 영은교회를 자기 몸 같이 아끼고,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장로님은 무엇보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몽골 단기선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임찬송 (청년 2부)



몽골 사역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국한 몽골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후 3:3)

2026년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이찬양 목사님과 박희자 권사님 그리고 18명의 청년이 ‘몽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6박 7일 동안 몽골 현지인 목사님이자 몽골 목회자연합회의 회장인 을지르 자갈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세 가지 키워드로 몽골 팀이 만난 몽골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환대

영하 27도의 추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심방을 갔던 알드릭에젠, 홈스테이했던 처이르, 짧게 머물렀던 닐라이흐까지 우리가 방문했던 모든 지역의 몽골 성도님들은 낯선 외국인인 우리에게 몽골 전통 치즈인 아룰과 몽골 식 만두인 보쯔를 비롯해 햄, 염소고기, 양고기 등 끝없이 음식과 음료를 내어주시며 반겨주셨습니다. 식수와 음식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쾌히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주셨습니다. 침대를 내어주시고 너무 더워 땀띠가 날 정도로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 한국에서 많은 선물과 사역을 준비했지만, 준비한 것 이상의 대접과 환대를 받았습니 다. 비록 음식에서 낯선 향이 나기도 하고 음식 설명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몽골 사람들과 몽글팀 사이에 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드릭에징, 가정 심방 및 전도

교통하심

알드릭에징에서 만난 76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할아버지를 심방하며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 다. 다음날 할아버지께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헤어질 때는 앞으로 매주 교회에 오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어와 세대, 성별 그리고 살아온 세월도 뚫고 우리를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몽골에서 총 여섯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 다. 낯선 몽골어와 한국어로 같은 찬양을 부를 때, 국적도 환경도 생각도 모두 다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로 한자리에 모였음을 느꼈습니 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수없이 외쳤습니 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거구나!’

연합

몽골성서공회, 몽골목회자연합회, 몽골연합신학대학교를 방문하며 몽골의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 다. 몽골의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함으로 오랜 기간 끝에 성경 번역을 완성할 수 있었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속아주기까지 하면서 연합하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연합을 보며, 몽글 팀의 마음에도 ‘연합’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기간 몽골 사람, 지역, 국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몽골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알게 됐습니 다. 몽골 땅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린 후, 수없이 연습하고 준비한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이란 찬송을 부를 때, 한국에서는 그저 가사로만 보이던 글자들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는 몽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몽골 땅을 밟기 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몽골에 전했고 몽골을 향한 평생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선교를 통해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러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선교 일정을 이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응원으로, 기도로, 물질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우표가 기꺼이 되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야를사!



처이르 예배 워십



닐라이흐 예배

몽골 사역지에서 몽글팀



따뜻한 샘

- 사라와 쿠칭에서 기도편지 - 구용회 선교사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눅 24:32)

쿠칭에서 하나님 이야기

‘열정’은 ‘목적’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열정이 사라졌던 이유는 ‘잘못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목적이 흔들리니 열정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나타난 ‘엠마오’는 ‘따뜻한 샘’이란 뜻입니다.

열정은 목적에서 시작되지만, 잘못된 목적은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질 때, 우리 가슴이 ‘따뜻한 샘’처럼 끝없는 열정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시작된 ‘따뜻한 샘(열정)’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엠마오 (Emmaus-엠마우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



TSM교회 수단 목사(SMK 담당)와 구용회 선교사

자들과 함께 걷고(Walk), 대화(Talk)하며 변화를 만드셨던 것처럼, ‘엠마오’ 프로젝트가 쿠칭의 청년과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양육하며, 직업과 창업의 기회를 돕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동행과 말씀이 두 제자의 걸음을 바꿔 놓았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쿠칭 청년과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샘(열정)’을 터뜨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그들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사역 소식

① 현지 중학교(SMK) 예배 및 사역

2월 5일 울루라야 중학교와 26일 살리바스 중학교를 방문하여 종교 수업 시간에 예배와 신앙교육을 하고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향후 ‘비전캠프’ 등을 열어 기초 신앙과 직업 교육을 도울 장기 선교팀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MK Saribas 학생들

② 설 명절 교제

2월 15일과 17일, 19일에 걸쳐 쿠칭 한인교회 성도들, 한인 선교 사회 가정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으며 따뜻한 명절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③ BEM 살롱 교회 오픈 하우스

2월 21일 토마스 목사님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여하여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초청하는 이 사역을 보며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① 사역의 어울림: 올해 모든 선교 일정과 사역이 말씀을 통한 풍성한 어울림이 되게 하소서.
- ② 엠마오 프로젝트: 기독교 리더십 교육을 통해 쿠칭 청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비전을 꿈꾸게 하소서.
- ③ 가족의 평안: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교육 3부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정성훈 목사

교육 3부 공동체는 영은교회 젊은 세대와 젊은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33세 이상의 싱글이 함께 신앙의 교제와 성장을 이루는 ‘더누림’, 영유아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어울림 1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어울림 2부’로 구성되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는 주일 예배와 소그룹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모임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특강과 제자훈련, 수련회와 아웃팅을 통해 신앙이 일상에서 실체가 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젊은 세대의 유입이 활발하고 단독 세대의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중요한 사명과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젊은 세대를 품고 섬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흐름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젊은 세대와 젊은 부부를 바로 세우는 것은 곧 다음 세대의 성장과 직결되며, 영은교회

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자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더누림 공동체는 이러한 비전으로 신앙공동체가 필요한 싱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말씀과 나눔을 통해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도전을 경험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뤄갑니다.

어울림 1부와 어울림 2부 역시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캠프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을 더욱 단단히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깊은 연합과 기쁨을 누립니다.

교육 3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따라 젊은 세대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약사에게 묻다:

한약&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궁금증



권지예 집사(한약사)

Q. 한약과 양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약은 여러 생약을 배합해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처방하는 전통 의학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양약은 특정 질환의 원인을 목표로 정해진 성분과 용량으로 만들어지며,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받습니다. 한약은 맞춤 치료에, 양약은 표준화와 과학적 검증에 강점이 있습니다.

Q. 약과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약이나 양약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입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에 해당하며,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할 때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보조적인 표현만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신체 기능 유지와 개선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Q.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A·D·E·K는 과다 섭취 시 독성이 생길 수 있고,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병원 약과 한약·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어도 될까요?

항응고제, 항암제, 면역억제제, 호르몬제 등은 상호작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간 대사 효소 경로를 공유하는 경우, 약물 농도가 예상과 다르게 변할 수 있으니, 의료진에게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약과 한약은 1~2시간의 차이를 두고 복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Q. 환절기 면역력을 부작용 없이 높일 수 있는 약이나 식품이 있을까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이나 식품은 없습니다. 아연은 감기 기간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홍삼의 면역 보조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있으나, 연구 결과는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근거가 확실한 면역 관리법은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Q. 만성질환자는 무엇을 특별히 주의해야 할까요?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고혈압 환자는 감초를 과대 섭취하면 혈압이 오를 수 있고, 당뇨 환자는 인삼류가 혈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 성분 함량이 높은 건강기능식품을 장기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라는 말은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간 수치 이상은 검증되지 않은 약초나 오염된 약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찬 음식은 피하라고 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또 한약복용중 피하거나 추천할 음식이 있습니까?

한약은 음식과 함께 소화기관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찬 음식은 위장 기능을 떨어뜨려 약효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고용량 카페인도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 한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생강과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식품으로 드시기를 권유하며, 구기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천연 성분은 안전하다는 인식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연 유래 물질도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에서 간독성, 신독성 발견 사례와 중금속 오염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안전성은 천연 여부로 결정되지 않으며, 용량과 상호작용에 따라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익선보다 적재적소의 자세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열정으로 잇는 사랑, 다시 연결되는 우리

2026 영은 올백 데이

일시
2026년 4월 19일 (주일)
오후 12:30 ~ 4:30

장소
영은교회 각 교육관 및
외부 지정 장소 (클래스별 상이)

신청기간: ~4월 5일(주일) | 문의: 교우부 허준 안수집사 010-3164-1919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목사 | 허남기
 담임목사 | 이승구
 부목사 | 최광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장미애 진윤규
 전도사 | 김영락 김찬영 손예지
 교육전도사 | 나진희 박선민 정희수 한수민 전성수 임현창
 파송선교사 | 구용희 백현이
 협동목사 | 소병찬 김규리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61 / 02-2676-7171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분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일야기도회	오후 8:30		
화요일직장인예배	오전 11:40		
모임 시간 안내	젊은세대 더누림	오후 3:00	7층 친교1실
	젊은부부 어울림 1부	오후 12:10	1층 어린이집
	젊은부부 어울림 2부	오후 3:00	2층 세미나1실

교회학교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5개월-3세	오전 11:00	
유아부	4-5세		
유치부	6-7세		
유년부	초등 1-2학년	오전 11:00	
초등부	초등 3-4학년		
소년부	초등 5-6학년		
꿈자람부	4-13세	오후 1:30	2층 유치부실
중등부	중학생	오전 11:00	3층 비전홀
고등부	고등학생	오전 9:00	
청년부	34세 미만 청년	오후 1:30	